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8만여명 다녀갔다

숙박업소·식당 등 활기… 경제효과 수억원 추산

진도군 “국제적인 관광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진도군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고군면 일원과 진도를 철마광장에서 진행된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8만 여명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3일 동안 ‘미라클 콘서트’를 진행하고 야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축제 기간 숙박업소와 식당, 특산물 판매장, 관광지 등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면서 수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적인 산불 재난으로 ‘바닷길 햇불 행진(퍼레이드)’과 불꽃 쇼가 취소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축제 개막식에서 펼쳐진 김산옥 명창과 아리아 무용단의 무대, 주제공연 등으로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이번 축제에는 충감독제를 도입해 ‘2025 새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진도아트비치’, 보물섬 모도, 홍주레드로드, 미라클 콘서트 등 다채로운 신

구 콘텐츠를 기획’해 축제를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진도아트비치’는 바다를 배경으로 1km 해안도로에 펼쳐진 바다 미술

관이며, 21점 이상의 조형물과 ‘미디어 아트’를 선보여 낮에는 조형미를, 밤에는 조명과 공연을 통해 색다른 예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군은 재할용품을 활용해 25m 길이의 참여형 전시물인 ‘2025 푸른밤’을 설치한 후 진도군 7개 읍·면 대표들이 함께 모여 폐기를 없는 친환경 축제에 대한 다짐과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수많은 방문객이 ‘보물섬 모도’에 들어가 사진 명소를 찾아가는 사진대회(포토존밸리), 도시락을 들고 떠나는 모도 소풍(피크닉), 판소리 공연, 모도 주민들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모도 밥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적인 관광 축제로 발전시켜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노재영 기자

순천, 대안 고등교육기관 ‘생태칼리지’ 설립 추진

‘생태문명 자문위원회’ 발족, 워크숍 개최

내년 정식 개교 목표…올해 시범사업 운영

순천시가 슈마허칼리지를 뛰어넘는 ‘순천생태칼리지’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순천시 생태문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내외 생태 관련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통해 이와 같은 계획을 2일 밝혔다.

슈마허칼리지는 영국의 대안 고등교육기관으로, 경제학자이자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인 에른스트 슈마허의 철학을 바탕으로 환경, 지속 가능성, 생태철학, 대안경제 등을 다룬다. 졸업 사실만으로 유수의 기관과 정부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기도 한다.

순천시는 20년 전, 대부분의 지자

체가 공장 유치와 먹고사는 문제에만 몰두해 있을 때 생태수도를 기치로 내걸었다. 시민사회와 함께 순천만을 보존하고 흑두루미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 등 지엽적인 생태 개념을 뛰어넘는 인류사적 전환인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속도와 성장 개념의 재정의, 서열화된 대학과 일률적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가치관의 이동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혜를 배우고 가르치는 생태칼리지가 구상된 까닭이다.

시는 내년, 2026년 정식 개교를 목표로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

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6월부터 6개월간, 20명 내외의 학생에게 학문과 공동체 생활을 결합한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4월 말 입학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식사 및 선발이 예정되어 있다. 장소 또한 해룡초등학교 농구분교를 거점으로 순천시 전역을 캠퍼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안고등교육을 민간과 행정이 협력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이전과는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2024년 7월에 제정된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담 팀 구성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알려져 있다.

순천시가 20년을 구상한 생태칼리지가 그 고민의 시간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조순익 기자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위한 국제학술대회

오는 14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서 개최

화순군은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존 관리’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지속 가능한 보존 관리를 위한 방향성 모색과 더불어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학술대회는 2일간 총 3부로 구성되며, 2개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1부는 오는 13일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일원을 답사하고, 현재까지의 조사·연구 성과와 문화유

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2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진행하며 ▲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보존 관리 현황과 과제’(이동식, 전 국립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 ▲ ‘화순 운주사 석조물의 손상 상태 진단 및 평가’(안유빈, 엔가드 연구원) 등 2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지속적인 보존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사덕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주임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국내외 전문가들 간에 분야별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화순 운주사는 완전한 불상

해남,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교실 운영

해남군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자격증인 ‘치매예방실버인지통합 강사’의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총 30명을 대상으로, 1, 2기로 나누어 교육이 진행된다. 1기는 오는 23일까지 모집해 4월 24일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2기는 7월 30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노인심리에 대한 이론 이해, 미술심리,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해 등 내용으로 총 9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교육대상은 관내 거주 여성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등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치매예방실버인지통합 강사는 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지 저하를 예방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과 관리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자격증과 실버제조지도사 자격증 2개를 취득할 수 있으며, 노인의 인지자극훈련, 화상 심리 프로그램,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광양, 홍역 환자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광양시가 올해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 유입(베트남)으로 인한 환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홍역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발열, 기침, 특징적인 구강 내 병변(회백색 반점), 비수포성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전염력이 강해 면역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노출되었을 때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홍역 예방수칙으로는 ▲미접종자 예방 접종하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발열 및 의심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등이 있다.

홍역 백신은(MMR) 생후 12~15개월 및 4~6세에 총 2회에 걸쳐 접종한다. 특히, 홍역 유행국가 방문 예정자,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유학생 중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또한, 1세 미만 영유아(생후 6개월~11개월)가 홍역 유행국가 방문 시 가족 접종이 가능하므로 최소 출국 2주 전에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

/광양=조순익 기자

‘목포 유달산 마라톤 대회’ 6일 개최

목포시는 유달산불축제 마지막 날인 6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25 목포 유달산 마라톤 대회 코스의 일부 구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대회 당일 8시 20분부터 12시까지 코스 구간에 차량통제를 실시한다.

대연초 삼거리에서 압해대교 양방향은 통제되며, 목포종합경기장에서 대양산단 방향은 일방통행이 시행된다. 목포대교 밑, 유달산우체국~유달산 일주도로, 유달산우체국~국제여객선터미널 앞까지 전면 통제되며, 구수협~대반동~해상케이블카 등도 부분 통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버스 운행도 8시부터 12시까지 제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봄꽃이 만발한 목포의 아름다운 거리를 달리면서 근대역사문화도 만끽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참가자들도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대회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 200여 명을 포함해 총 33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목포=김재욱 기자

광양, 4월 시정발전 유공 시민 표창 수여식

이달의 봉사왕 광양읍 조은옥씨 등 총 33명 수여



광양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 곳곳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 온 시민 33명에게 4월 시정발전 유공 시민 표창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수여식에선 이달의 봉사왕으로 선정된 광양읍의 조은옥 씨가 시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2017년부터 479회, 2,481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조은옥 씨는 2월 한 달간 18회 75시간을 봉사해 활동 실적이 가장 우수한 자원봉사자로 뽑혔다. 조은옥 씨는 장애인복지시설 봉사, 독거노

인 무료급식 봉사, 명절맞이 후원품 전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여영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부지점장에게도 표창이 수여됐다. 박여영 부지점장은 지난 2월 고령의 고객이 9천8백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표로 인출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적극적인 조치로 보이스피싱 사실을 확인해 금융사기를 예방한 유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 받았다.

/광양=조순익 기자

담양 ‘스마트경로당’ 운영 개시

어르신 여가 생활 지원 디지털 환경 제공

담양군이 4일부터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즐거운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시작한다.

스마트경로당은 관내 12개 대표 경로당 및 향촌노인복지관 스튜디오에 원격 화상 시스템과 오락·교육용 키오스크 기기를 설치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 특성상 거리가 멀어, 문화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통해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담양=조승채 기자

장성,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장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2024년 실적)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 성과, 우수사례, 주민체감도 5개 항목 17개 지표를 기준 삼아 평가가 시행됐다. 장성군은 다수의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군은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도 운영 중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장려 혜택을 부여하는 등 업무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 행복을 위한 900여 공직자들의 노력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